

[오중석의 북한생각] 여전히 배고픈 북한 주민

서울-오중석 xallsl@rfa.org

2024.10.18



북한이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수해지역들 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학대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월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침수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올 한해에도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의 인도주의 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민간단체 세계기아원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4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지수는 31.4점으로 ‘심각’ 단계로 분류되어 작년(2023년) 27.8점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2000년 43.7점까지 치솟았던 북한의 기아 지수는 2008년 30.5점, 2016년 26.2점 등으로 점차 개선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말리아, 예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등 장기 내전을 겪으면서 국민들을 굶주림에 내몬 나라들의 기아 지수와 큰 차이가 없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본격적인 수확 철이 시작되기 전 9월부터 쌀 추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등 선전매체들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에서 사회주의 강국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벼, 옥수수 수확에 농민과 공장 종업원, 학생을 가릴 것 없이 전 주민이 떨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톨의 식량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동력과 장비를 투입하라는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식량부족 국가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랙터 등 농기계와 연료가 부족한 일부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소달구지와 지게를 이용해 벼단을 나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농사가 풍작이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자 노동신문은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지난 12일까지 전국적으로 벼가을(추수)이 기본적으로 결속됐다”면서 “쌀로써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가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작년보다 적거나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2023년)에도 북한은 사상 최고의 농업생산량을 달성했다고 자랑했지만 식량부족을 숨길 수 없었고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량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북한 물가] 북 식량가격 오르고 있다

북 일부 지방서 벼단 운반에 지게까지 등장

최근 탈출한 탈북민의 증언과 북한의 대중국 쌀 수입량 증가를 보면 작년에도 북한주민이 식량난에 시달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5만2216톤의 쌀을 수입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귀순한 4명의 탈북민 증언에서도 식량난이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민이자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현 굿파머스연구소장은 “북한에서 곡물을 식량과 식품 생산 등에 이용하려면 연간 최소 600만 톤 이상이 필요한데 2023년의 식량 생산량 482만톤으로는 식량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정한 북한의 연간 식량 필요량은 576만 톤입니다.

북한주민이 해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절대 생산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북한의 식량분배제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농어촌연구원의 김혁 선임연구원은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국가 보유 식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느라 주민 몫으로 돌아가는 식량이 적어 식량난을 겪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곡물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시장에서의 곡물 매매를 단속하면서 쌀 값이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군량미와 비상식량 등 국가 보유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시장에서 알곡을 거래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식량을 국가 창고에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올 여름 신의주와 의주일대에서 수해를 입은 경작지 면적을 곡물의 양으로 환산하면 옥수수 약 3만 3천 톤, 쌀로는 약 1만 2천 톤인데 이는 1만 명의 북한 주민이 일년 간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북한당국의 주장과 달리 올해 수확량은 풍작이었던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해 주민들에게 분배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판매한 무기 대금의 일부를 밀로 받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산 밀가루를 군대와 돌격대, 국영 기업소 등에 우선 배분하면서 장마당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판매하는 탄약과 무기 대금을 전부 식량으로 바꿔서 들여오기만 해도 식량난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외화를 퍼붓고 있는 북한이 주민을 위해 식량수입에 매진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결국 식량 분배와 장마당 활성화 그리고 주민 식량난 해결에 대한 북한당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올해에도, 내년에도 북한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